

해외 업계 소식

델컴퓨터, 상하이에 R&D센터

세계 2위 PC업체인 미국 델컴퓨터가 최근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연구개발(R&D)센터를 개설했다. 이번 델의 상하이 센터는 이 회사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세운 첫 R&D센터이자 중국에 있는 R&D 센터 중 최대 규모다. 센터는 창닝지구에 있는 멀티미디어산업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초기에는 270명의 연구원으로 시작, 향후 2~3년내에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국 델의 R&D 총매니저 켄 란쉬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일본과 미국까지도 제칠 수 있는 등 세계 경제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 확실시 돼 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특별히 미국 이외의 지역 중 상하이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풍부한 인적자원과 편리한 교통시설 그리고 뛰어난 물류 지원 체계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델은 베어스턴스가 주최한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PC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2분기 실적이 당초 제시한 주당 순이익 18센트와 매출 82억달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프린터 업체인 렉스마크인터내셔널의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시바, 무선키보드 갖춘 노트북컴퓨터 발매

도시바가 키보드를 본체에서 떼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컴퓨터 ‘다이나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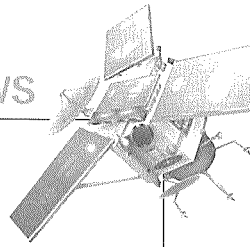
P5/S24PME’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착탈식 키보드를 채택, 데스크톱 PC처럼 키보드와 본체를 분리해 사용자의 뜻대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7MHz의 주파수로 본체와 교신하며 통신 가능 거리는 1m 정도다. 또 광학 무선마우스도 함께 제공, 코드 없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 16인치 LCD화면에 인텔의 데스크톱용 2.4GHz 펜티엄4 칩과 40Gb 하드디스크를 장착했다. 도시바는 “‘다이나북 P5/S24PME’는 데스크톱 PC의 성능과 노트북컴퓨터의 편리성을 함께 갖춘 제품”이라고 밝혔다.



마쓰시다, PDP 수출 확대

일본 마쓰시다전기가 미국과 유럽의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PDP 수출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크게 늘린다. 마쓰시다는 올해 생산예정인 25만대 중 약 12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마쓰시다는 전체 판매의 반 정도를 해외에서 달성해 2005년엔 1조엔이 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PDP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복안이다.

PDP는 액정화면에 비해 화면이 크고 두께가 얇은 TV를 만들 수 있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마쓰시다는 미국 시장의 홈시어터 수요와 유럽의 업무용 시장을 적극 노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쓰시타는 토레이와 공동 출자해 '마쓰시타플라즈마디스플레이'를 설립, 2004년 봄 조업 개시를 목표로 PDP 생산시설을 건설중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마쓰시타는 일본과 중국 상하이의 생산시설을 포함, 연간 150만대의 PDP를 생산하게 된다.

MS, 무선 네트워킹 시장 진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가을께 무선 네트워킹 제품을 선보이며 이 시장에 진출한다.

C넷에 따르면 MS는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무선으로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이용,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킹 제품을 가을께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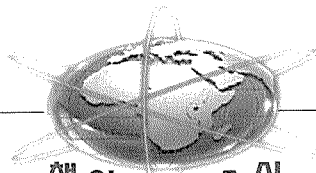
일명 '와이파이' (Wi-Fi: Wireless Fidelity)나 '802.11b' 네트워킹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단말기간 상호 접속은 물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관련, 애덤 레바쇠르 MS 하드웨어 사업본부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이 서비스를 이번 가을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가정에서 무선 네트워킹을 설치,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니퍼리서치의 조 라즐로 애널리스트는 MS의 이 서비스에 대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와이파이 제품과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회사 양키그룹의 도미닉 에인스코프 애널리스트는 "MS의 새 무선 네트워킹 서비스가 가정에 사무실 환경을 구현하려는 MS의 전략과 들어맞는다"며 "MS의 윈도XP 운영체제는 이미 무선 네트워킹 제품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론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개발,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워킹 시스템을 개발, 선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의 업계 표준 메모리인 'DDR-I'을 대체할 DDR-II SD램 메모리를 장착한 시스템을 이번에 선보인 것은 앞으로 메모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보통 DDR-II 메모리는 100MHz 버스에서 초당 4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버스가 150Mbps일 경우에는 600MHz까지도 가능한데 이번 마이크론의 데모 시스템은 초당 533MHz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는 2004년 초에는 이 제품의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리업체들은 개인용컴퓨터(PC)를 비롯해 핸드헬드컴퓨터,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 지원 제품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점차 구형이 돼가고 있는 DDR-I은 3차원 그래픽·고속네트워킹·무선통신 등 새로 등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원 공급에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마이크론보다 두달 앞서 삼성전자는 512MB DDR-II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시장은 올해 211억달러 그리고 오는 2004년에는 411억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DDR가 올해 D램 시장의 40%,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업계 소식

이보다 더 늘어난 66%를 차지할 것으로 가트너는 전망하고 있다.

일 메가칩스, 휴대전화로 디지털방송 수신 기술개발

일본 반도체 개발업체 메가칩스는 휴대전화기나 PDA 등 이동통신단말기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LSI(대규모 집적회로)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LSI를 이용하면 고속 이동중에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어 방송 및 통신 융합서비스와 이에 대응하는 단말기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칩스는 내년말로 예정된 디지털방송 개시에 맞춰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방송국들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개시를 앞두고 일반 TV를 대상으로 한 고화질 방송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PDA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낮은 전력으로 방송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소형 LSI 개발은 그동안 모바일 방송수신용 단말기 개발의 핵심과제로 꼽혀왔다.

후지, 코니카,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용 부품 생산 나서

일본에서 이동전화단말기를 이용한 사진전송 서비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필름 업체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이동전화단말기의 핵심 부품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지와 코니카가 이동전화 사진전송 서비스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성능 고해상도소자 (CCD), 반도체 센서 등의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지는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17만픽셀 CCD를 내놓을 예정이며, 첫째 100만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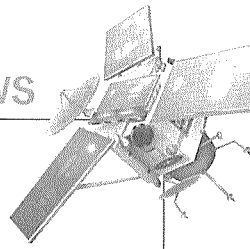
후지는 또 e메일로 전송된 사진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NTT도코모에 공급, NTT도코모의 i샷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코니카는 소형 디지털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센서를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해 올해 안에 대량생산에 들어간다. 올 12월까지 30만픽셀 디지털카메라용으로 월 4000~5000대의 센서를 생산하고 2005년엔 100만픽셀 디지털카메라용 반도체 센서를 생산할 예정이다.

히타치, 세계 첫 수랭식 노트북 발매

일본 히타치사가 세계 최초의 수랭식(水冷式) 노트북PC를 선보인다.

오는 9월 30일부터 수랭식 노트북PC를 발매할 예정이며, 데스크톱이 아닌 노트북에 수랭식 기술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랭식은 종전의 공랭식과 달리 냉각액으로 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때문에 구동음을 공랭식에 비해 30%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히타치가 발매할 '플로라 270W 사일런트' 모델은 본체 내부의 튜브에 냉각액을순환시키는 '정음(静音)수냉시스템'을 탑재해 중앙연산처리장치(CPU)와 액정패널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이 제품은 냉각액에 부식방지제를 집어 넣어 5년 이상 냉각액 보충이나 교환이 필요없도록 설계됐으며, 가격은 34만1000엔. 히타치측은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외에 일반소비자 대상의 인터넷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타치, 전자책사업 본격화

일본 히타치가 전자책(e-book)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히타치는 오는 10월부터 NTT도코모·샤프·디지털 재팬 등과 공동으로 개인휴대단말기(PDA)용 전자책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배급할 도서 종류와 가격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히타치는 전자책 배급 관리와 요금 징수 시스템 등을 담당하고 NTT도코모와 샤프는 사용자들이 전자책 등 관련 콘텐츠를 담은 웹 사이트를 각각 구축해 사용자들이 PDA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한 접속료를 내고 전자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재팬은 일반 도서를 전자책용 XMDF 포맷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히타치 관계자는 “우선 샤프의 자이루스(Zaurus) PDA 등 팜OS와 포켓PC 계열의 다양한 PDA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휴대폰으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PC와 서버 등 하드웨어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 영역 등의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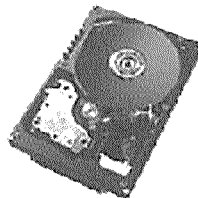
이를 위해 히타치는 전자책 배급 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투씨(B-to-C) 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BM, 저가형 스토리지 시판



세계 최대 컴퓨터업체인 IBM이 로엔드(저가형) 데이터 스토리지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IBM은 기존 로엔드 데이터 스토리지의 절반 가격에 불과한 새로운 NAS(Network Attached Storage)형 스토리지(모델명 토털스토리지 NAS 100?사진)를 다음달 시판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1.75인치 두께에 480Gb 저장 능력을 가진 이 제품은 4420달러다. 이 가격은 초고속 SCSI 드라이브를 내장한 이전 제품인 ‘NAS 200’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전자우편 저장·서버 통합·스토리지 백업·종이 문서 기록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스토리지 제품 시장에 최근 우리의 경쟁자인 EMC도 사업 박차를 선언하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새 제품은 시스템을 다운시키지 않도록 4개의 핫 스왑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IBM, 146GB HDD 출시



IBM이 146Gb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내놓았다. 세계 최대 컴퓨터업체인 IBM은



에 의 업 계 소 식

146Gb의 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울트라스타 146Z10'을 발표하며 시게이트·맥스터·후지쯔 등 경쟁업체와의 판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선점에 나섰다. 빌 힐리 IBM 부사장은 "새 제품은 우리 회사의 3세대 1만rpm 제품이자 떨림을 최소화하는 신기술로 무장돼 있다"며 "경쟁업체들도 146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선보이고 있지만 출시하자마자 5000대를 주문 받기는 IBM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NEC, 차세대 DVD기술 개발

일본 NEC가 기존 DVD와 호환이 가능한 차세대 DVD 기술을 개발했다.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 기술은 현행 DVD 용량의 4배인 20.5Gb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일반 DVD와 같은 12cm 디스크를 사용하며 레이저 파장은 405nm, 데이터 전송률은 32Mbps다.

NEC가 개발한 신형 DVD 규격은 세계 9개 주요 가전기업들이 추진 중인 차세대 광디스크 규격 블루레이와 달리 기존 DVD 규격과 호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DVD플레이어를 기존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NEC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DVD 규격의 보급을 위해 국제 DVD포럼에 PC용 DVD 표준규격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DVD 표준은 삼성·소니·마쓰시타·필립스 등이 참여한 블루레이 진영, 최근 독자 규격을 제시한 도시바와 NEC의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블루레이 규격은 저장용량이 도시바와 NEC 규격에 비해 크지만 기존 DVD와 호환성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반면 도시바와 NEC

의 표준은 기존 DVD와의 호환을 통해 신규 도입 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NTT도코모, 카메라 장착 휴대폰 2종 출시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업체인 NTT도코모가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 단말기 2종류를 출시, 침체에 빠진 휴대폰 시장의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도코모가 이번에 출시한 휴대폰은 'D251i' 과 'F251i' 등 두 모델로 각각 미쓰비시와 후지쯔 등이 제작했다.

D251i는 0.17 메가픽셀 소형 카메라와 26만 칼러 LCD를 장착하고 있으며, 소니의 메모리стик 데이터 스토리지 카드를 사용해 최대 167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F251i는 특히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 저장된 사진을 매 4초마다 한 장씩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D251i가 약 2만7000엔, F251i는 약 2만3000엔이다. 카메라 장착 휴대폰은 그동안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일반 휴대폰과 인터넷 가능 휴대폰 등이 시장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최근 이통 업체들의 새로운 주력 경쟁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J-폰이 지난 2000년 11월 처음으로 샤프가 만든 카메라 장착 휴대폰을 선보여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KDDI도 올 4월 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다. 도코모는 뒤늦게 지난 6월부터 샤프가 개발한 SH251i를 선보이며 이 시장에 뛰어든 후 지금까지 약 52만대를 판매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일본 국내에서 카메라 장착 휴대폰의 출하가 지난해보다 280%나 증가한 2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